

조달청, 인공지능(AI) 제품 공공조달 지원 본격화

-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확대·가점부여까지 전방위 지원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최근 시행된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맞춰, AI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.

앞으로 인공지능 제품·서비스*(이하 AI 제품)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해 혁신적인 AI 기업들을 육성하고, AI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.

*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이 확인한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
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공공조달시장 진입)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진입 기준을 완화* 하고, 계약 시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.

* ①실적(3천만원 이상 → 삭제), ②업체수(3개사 이상 → 2개사 이상), ③규격(표준 규격 → 업체 제시규격)

② (판로 확대)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 금액을 4배로 늘려* 추가 경쟁 없이 수요기관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.

* 일반제품: 5천만원 이상 → 2억원 이상, 중소기업간경쟁제품: 1억원 이상 → 4억원 이상

③ (가점 부여)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AI 제품에 가점(+1.5점)을 부여한다.

백승보 조달청장은 “AI 기업들이 공공조달을 마중물 삼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며, “조달청은 연간 약 240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이 AI 3대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.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구매사업국	책임자	과 장	박 진 원	(042-724-7210)
	구매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김 용 대	(042-724-7266)
담당 부서	기술서비스국	책임자	과 장	유 경 숙	(042-724-6111)
	기술서비스총괄과	담당자	서기관	김 희 준	(042-724-6141)